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 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강민선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눅6:1-5	다함께
말씀선포 Sermon	안식일의 주인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4월 28일	5월 5일
윤하나	김주연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본당)
청소년 주일예배	오후 1시 30분 (친교실)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
아침묵상	(화,수,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누가복음강해(22) 새포도주로 텃입혀지는 삶

본문 : 눅5:33-39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힘든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듣는 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설교자가 가장 유혹을 받는 부분입니다. 성도들에게 쉽게 전달하려는 노력이 지나치다 보면 본질에서 떠나 상식적인 접근을 하게 되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되고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길이 좁은 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를 하시면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반응했을 것 같지만 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원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파티를 열자 그것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에 동참하지 않냐고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종교는 행위적인 것이었습니다. 금식을 정기적으로 하고 헌금생활과 봉사생활을 하면 믿음이 좋다고 평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단지 곡을 끊고 하나님께 생떼를 쓰거나 사람들 앞에 믿음 좋음을 보여주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삶의 변화와 열매를 수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질은 사라지고 행위만 남은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겉으로 보면 힘들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라는 데로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라는 데로만 하면 믿음 좋다는 평가를 받는데 그거보다 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본질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본질의 신앙에는 반드시 참 열매가 맺힙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풀고 계십니다. 과거 율법주의적으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본질적인 신앙생활로 돌아서라는 경고이자 충고였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이 당시 상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헌 부대에 새술을 담으면 발효가 되면서 부풀어 올라 곧 터져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땅에 쏟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 옛 습관과 관습과 사고방식과 가치관 속에서 진리를 담으면 진리는 다 쏟아져 버립니다.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생활습관, 새로운 목적, 새로운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텃입을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우리를 텃입으셔서 이 유한한 장막집에 시선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묵은 포도주를 원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싫어합니다. 여전히 자신이 살던 방식과 자신이 믿던 확신 속에서 종교인에 만족합니다.

새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여전히 묵은 포도주인 율법만을 먹고 마시고 있는 자들은 절대로 새것을 구하지 않는 법입니다.